



기획시리즈

변 병 호 / 임업연구원 산림 미생
물과장

3, 4월의 해충 (Ⅱ X Ⅳ)

피목가지마름병 (皮目枝枯病)

Cenangium ferruginosum Fries

피목가지마름병 은 소나무류의

가지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주로 작은가지에 많이 발생하므로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경우는 적으나 고사된 가지가 나무에 오래도록 붙어 있어 주변 경관을 저해시킨다. 피해가 심할때는 대부분의 가지가 말라 죽으므로 반송과 같이 수형을 중요시하는 나무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병해이다.

○ 분포 : 한국, 아시아, 북미, 유럽

○ 기주식물 : 소나무, 곰솔, 잣나무

○ 피해 및 병징 : 직경 2cm 내외의 작은 가지에 주로 발생하나 작은 나무에서는 줄기에도 발생한다. 병든부위의 수피를 벗겨 보면 건전부위와의 경계가 뚜렷하고 경계부위에서는 소량의 송진이 나온다. 환부가 가지를 한바퀴 돌면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죽는다. 침해를 받은 가지는 때로는 구부러져 밑으로 처진다.

병든부위의 피목에는 농갈색(濃褐色)을 띤 균체각(子囊殼)이 약간 돌출하고 다습하면 부풀어



오르고 표면은 농갈색인 접시모양으로 퍼진다.

○ 병원균 : 자낭반은 4월경 성숙하며 7월하순~8월하순에 자낭포자가 비산하여 새로운 가지에 침입 월동한 후인 다음해 봄에 발병한다. 자낭은 곤봉 모양으로 8개의 포자가 일렬로 배열되며 크기는 90~125×9~16 μ m이다. 자낭포자는 무색이며 단포(單胞)로 타원형이며 크기는 8.5~11.0×6.0~7.5 μ m이다. 측사는 실모양으로 끝부분이 약간 부풀며 길이는 100~120 μ m이다.

○ 방제법 : 해충의 피해를 받아 수세가 쇠약된 나무에 많이 발생하므로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등 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제를 철저히 한다. 또는 한발의 피해를 받았거나 뿌리가 절단된 나무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피해를 받은 나무는 포자 비산 시기인 7월하순~8월에 보호 살균제를 살포한다.

나무가 건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육립하며 병든 가지는 6월 이전에 잘라 태운다.